

『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허 훈입니다.

-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2호
『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
정당현수막 관련된 각종 제한이 완화되며
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- 마구잡이로 설치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신호등, 건물 등
시민들의 시야를 가리고 낮게 설치된 현수막이나 줄에
시민이 걸려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안전사고도
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또한,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들이
오히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혐오를 부추기고
어린이들이 불필요하게 정당 구호에
강제 노출되는 문제 또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

- 물론, 정당현수막을 일정부분 규제하려는
행정안전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노력이 있어왔으나
개정 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투명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
위해서라도 법 개정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현행 「서울특별시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.

-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개수를
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로 정하는 대신 신고를 필한
정당현수막의 경우에는 지정계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
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한, 정당활동 관련
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
비방이나 모욕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
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
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